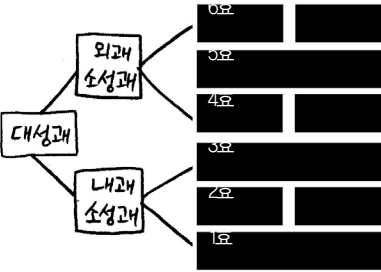


의식으로 풀어보는 주역의 기초 ③

이번 호부터는 하나의 괘를 보는 법입니다. 우리는 괘를 뿔아 현재 내가 처한 전체 상황을 볼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더욱 더 심오함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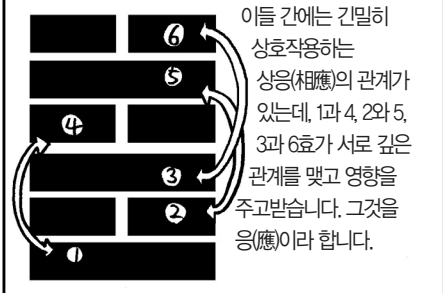


주역의 괘는 참으로 흥미로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괘 하나를 대성괘(大成卦)라고도 하는데 대성괘는 내괘와 외괘라는 소성괘(小成卦) 두개가 합하여 만들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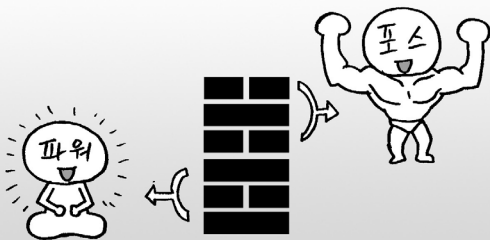
그리고 내괘와 외괘는 각각 세 개의 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대성괘는 '나를 나타내는 내면의 괘(內卦: 1, 2, 3호)와 '너' 또는 '세상'을 나타내는 외부의 괘(外卦: 4, 5, 6호)로 구성됩니다.

내괘인 '나'는 1에서 2, 3호로 성장하여 외괘인 '너/세상'에 4, 5, 6호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6, 5, 4라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인 3, 2, 1에도 변화가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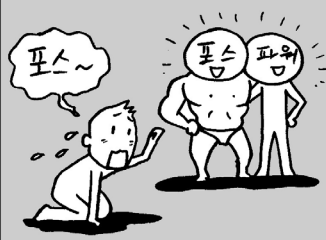


이들 간에는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상응(相應)의 관계가 있는데, 1과 4, 2와 5, 3과 6호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것을 응(應)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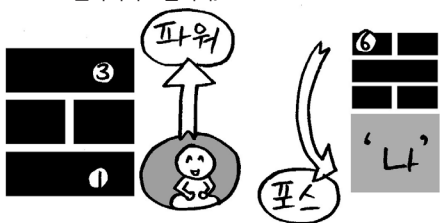
하나의 대성괘 내에서 효의 흐름을 보면 아래로부터는 '나'가 성장을 하고, 위로부터는 '너/세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때 아래로부터 성장하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을 파워(power)라 하고, 이미 드러나 세상을 움직이며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로부터의 힘을 포스(force)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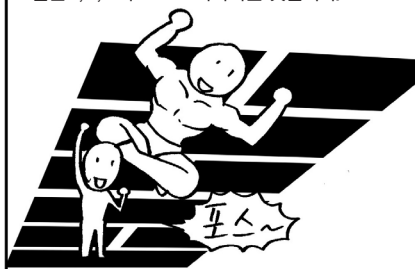
사람들이 보통 실패하는 이유는 파워는 키우지 않고 포스를 얻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워가 커지면 보이는 포스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파워는 1효에서 3효를 향해 커나가고, 현재 존재하는 외부의 포스는 6효에서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파워가 커져 외부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포스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즉 한 사람의 내적인 힘이 굳은 의지로 화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물리적 힘인 4, 5, 6의 포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주변 환경과 외부의 포스가 한 사람의 내면에 영향을 미쳐 그 힘이 내면에 파워를 키워주며 이런 측면에서 외적인 포스 또한 내적인 파워로 변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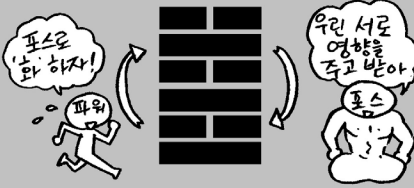


이렇게 파워와 포스는 같은 힘의 다른 표현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내적인 파워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곧 외부에 그 형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너/세상'의 외적인 포스는 보이는 힘이지만 곧 사라져갈 운명에 처해있으며, 그러나 당장은 '나'에게 강력한 힘을 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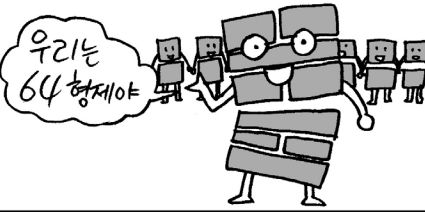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초효(효)에서 3효까지 오르는 과정은 '나' 또는 내면의 힘인 파워가 자라는 과정입니다. 4효에서 상효(6효)까지는 파워가 포스로 화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4효) 더욱 강력한 포스(5효)로 변화다가 6효에 이르면 사라져 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또 그 과정에서 4, 5, 6의 포스는 늘 1, 2, 3효인 '나'의 파워에 영향을 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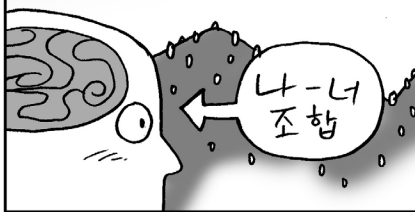
그런데 왜 왜 하나에 '나'와 '너'라는 완전히 다른 둘이 함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즉, '나'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는 '너'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는 나 아닌 '대상'을 전제할 때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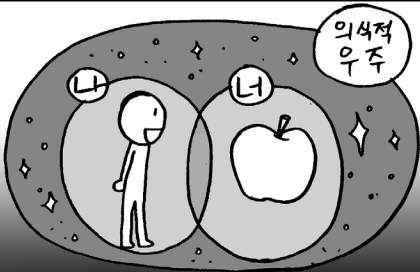
상대가 없는데 '나'라고 말할 사람은 없듯이 말입니다. 따라서 소성괘인 '나와' '너'는 서로 안에 서로를 품고 있으며 한 쌍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에 이 둘이 짝이 되어 하나의 대상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역에는 이 대상괘가 64개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상황의 패턴을 64가지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언제나 한 쌍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지된 것들이 의식에게는 모두 '나-너'의 조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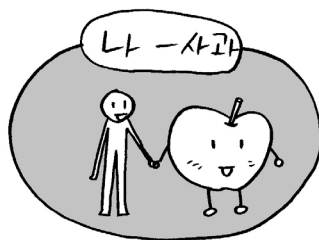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외부의' '인 사과를 봅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 외부의 사과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사과란 없습니다. 그저 전체 우주의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부분일 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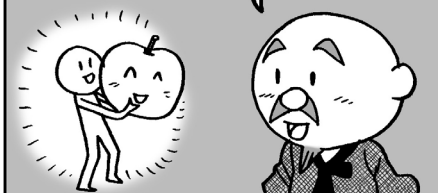
그럼에도 '나'에게 전체로부터 분리된 사과가 보인다면 그것은 '나'의 경험과 지식 등으로 이루어진 '나'의 세계에서만 느껴지고 경험되는 '사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수원에서 사과를 길러본 사람이 보는 사과와 도시에서 자라 수퍼나 마켓에서만 사과를 사본 사람이 보는 사과는 단어가 같더라도 그 의미와 느낌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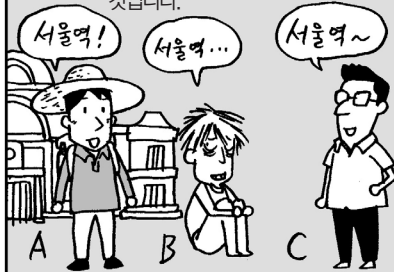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과'는 모두 다른 사과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보는 사과는 나만의 사과인 것입니다. 즉 '나'의 '사과'는 사실 '나-사과'로 묶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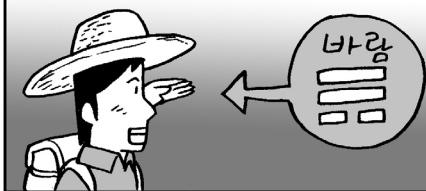
이때 '나-사과'의 느낌에는 내가 경험한 총체적인 사과와 느낌(사과라는 측면)과 더불어 그 사과에 대한 나의 태도, 판단, 선호도의 느낌('나'라는 측면)이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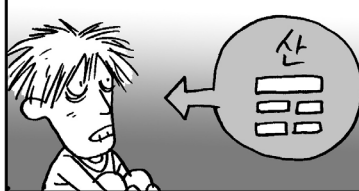
이와 같이 내가 경험하는 현실도 역시 '나만의 현실'입니다. 똑같은 서울역에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시골에서 막 상경한 A와 10년 동안 그곳에서 노숙하던 B, 오랜 해외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C가 내려선 서울역은 모두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A의 '나'는 느리고 천천히 흐르는 시골의 시간에 익숙해 있어서 그와 매우 대비되는 빠른 '서울역'이라는 상황이 느껴집니다. 그의 '나'는 바람(巽)같은 '외부'를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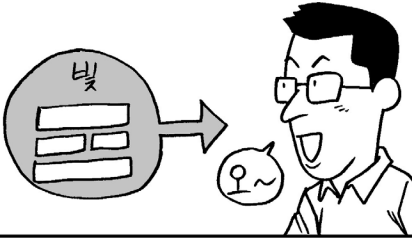


B의 '나'는 차가운 돌덩어리로서의 잠자리일 뿐인 '서울역'이 주로 느껴집니다. 그는 살아가기 힘든 산(艮) 같은 외부를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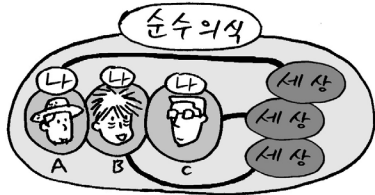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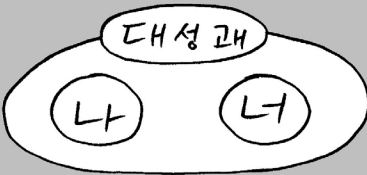
C의 '나'는 20여년 전에 비해 화려하고 빛나는 '서울역'을 주로 봅니다. 그는 빛나는(離) 외부를 느낍니다. 그들은 이렇게 각자의 '서울역'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보는 '서울역'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믿음일 뿐임을 알아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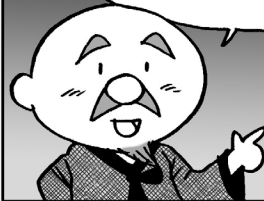
이렇게 모든 현실은 같아보여도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으며 나는 '나'만의 '현실'을 경험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의식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와 연결된 '나'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각자의 '나-너/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성괘 안에 '나-너'가 포함된 이유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과인 '나'와 외과인 '너/세상'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는지 보겠습니다.



'나-세상'이 하나인 것은 '나'와 '세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최근에 자신이 이상하게도 비슷한 사람과 상황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연속된 사건들을 만난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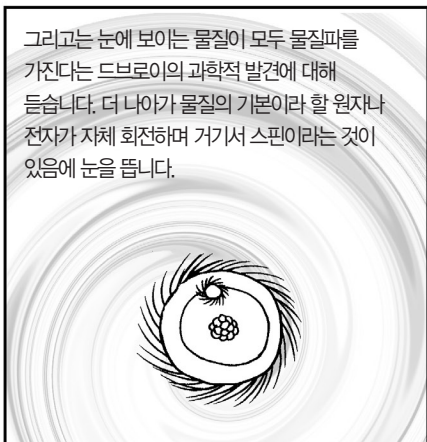
그로 인해 더 깊어진 '나'를 경험한 경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사물과 입자만을 존재하는 것이라 인정하던 '나'는 어느 날 전파와 주파수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지요.



'나'가 인정하지 않던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나'는 파동이라는 세계에 대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런 후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다는 사실(아인슈타인과 JJ 톰슨의 실험에 의해 밝혀졌지요)에 접합니다. '나'는 그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고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더욱 더 '나'가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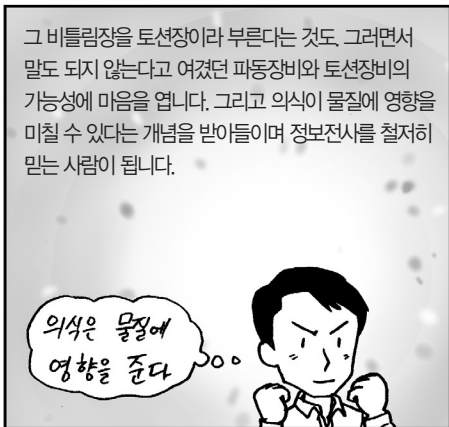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모두 물질파를 가진다는 드브로이의 과학적 발견에 대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의 기본이라 할 원자나 전자가 자체 회전하며 거기서 스핀이라는 것이 있음에 눈을 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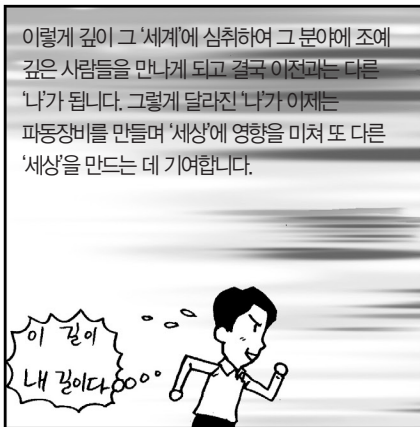
이제 '나'는 스핀에는 좌선(左旋)과 우선(右旋)이 있으며 모든 회전하는 것의 주위에는 소용돌이 같은 회전장, 즉 비틀림 장이 형성됨을 알게 됩니다. 거시 세계에서 그 연구와 실험을 한 빅터 샤우버거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 비틀림장을 토션장이라 부른다는 것도 그러면서 말도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파동장비와 토션장비의 가능성에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며 정보전사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깊이 그 '세계'에 침투하여 그 분야에 조예 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전과는 다른 '나'가 됩니다. 그렇게 달라진 '나'가 이제는 파동장비를 만들며 '세상'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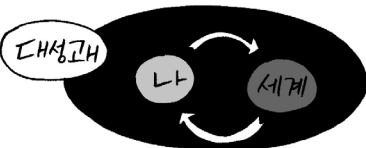
보십시오. 위와 같이 '나'가 만약 마음을 열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분야에서 더 깊은 세계를 개척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아가 그 '나'가 그냥 마음을 연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의 여러 상황과 만남으로 인해 변화의 임계점에서 '나의' 마음이 열린 것일까요? 즉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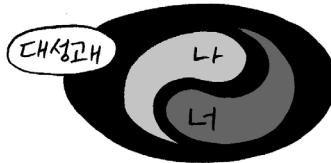
'내가 무언가를 알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세계가 더 열립니다. 그리고 더 깊게 열린 그 세계가 '나'에게 다시 영향을 미쳐 '나'를 더 많이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힘과 지식, 경험을 얻은 '나'는 또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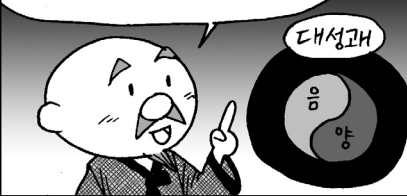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깊이 빠져드는 메커니즘은 바로 '나-세계'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세상'이 함께 있으며 함께 돌아가는 대성괘라는 세계에 있기 때문이지요. '나'와 '세상'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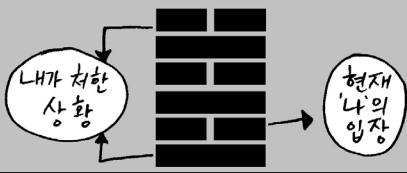
주역은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 '나-나', '태극'의 단계 중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우쳐주며 거기에 뜻대로 참여할 수도, 그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성괘의 현상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 하나는 태극이며 그 안에는 음과 양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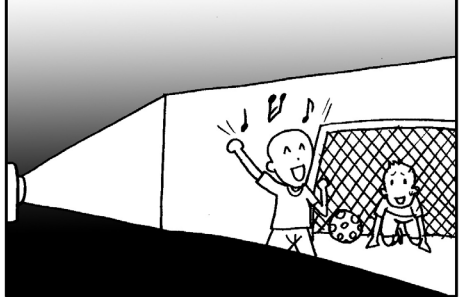
의식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순수의식이 이 순간 '너/세상'을 경험하는 동시에 '나'라는 것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의 대성괘로 나타낼 수 있으며, 거기서 '나의' 입장은 하나의 효로 대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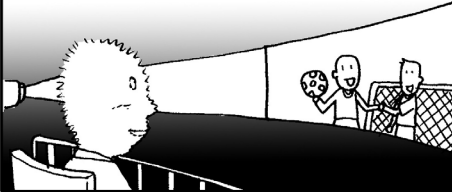
그 효가 어떻게 지나나 주변상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효와 효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나'와 '세상'의 관계는 모두 순수의식이라는 태극의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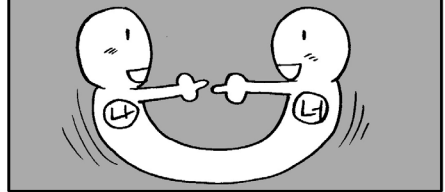
그것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시 된 그 영화의 주인공은 '나'로 느껴지고, 그 외의 인물은 '너'로 느껴지며, 상황은 '세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쁘고 슬픈 일들은 지금 스크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뿐입니다.



스크린 속에서 나와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 관객으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엔 너도 나도 없으며, 그것이 바로 태극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 자신이 느끼는 '나라는 느낌과 '너'라는 느낌도 역시 무언가 내적으로 동일시된 느낌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느낌들에서 벗어나 있으면 태극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의 '나-너' 덩어리인 전체상황을 보고 그 안에 연루되어 있으면 대성괘(大成卦)의 세계에 있는 것이며, '나라는 느낌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소성괘(小成卦)인 내괘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괘를 보는 기본사항이며 효들의 관계인 위비응중(位比應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